

광주시, 건축안전센터 기능 강화...건축현장 안전 지킨다

건축안전자문단 인력 확충...대규모 공사 등 특별점검반 편성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간담회 정례화·정기 현장안전교육 시행

광주시가 '광주시 지역건축안전센터' 기능을 더욱 확대하고, 건축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안전자문단을 통한 건축공사장(연면적 660㎡ 이상) 안전 자문 및 해체공사장 현장점검, 화재취약 시설 대상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추진,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지원, 반지하 등 재해취약시설 실태조사-긴급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이러한 지역건축안전센터 기능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건축구조·시공·안전 등 7개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안전자문단을 기존 57명에서 76명으로 대폭 늘린다. 대규모 공사나 재난 취약현장에 대해서는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특별기획

점검을 실시한다.

건축공사장에 대한 자문 규모도 확대해 중규모 현장은 물론 공사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현장에 대해서도 공사 관계자 현장교육과 안전자문을 실시한다. 건축물 해체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건축 안전관리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불에 타기 쉬운 건물의 외장재 등을 교체해주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참여율도 높인다. 이 사업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화재안전 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확보를 위해 불에 타기 쉬운 건물의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올해 말 지원 사업이 종료되는 만큼 화재에 취약한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 등을 방문해

참여율을 최대한 높일 계획이다.

광주시는 올해 소규모 노후 건축물(연면적 200㎡ 미만·중공 30년 이상)에 대한 안전점검 지원에도 나선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구조점검과 화재안전점검 비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이 밖에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안전자문단 인력 확대에 따른 공사현장 점검과 협업 강화를 위해 5개 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각종 건축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또 5개 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와 감리자 등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기 안전교육도 반기별로 실시한다.

박금희 광주시 건축경관과장은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광주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다"면서 "센터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체계적이고 신뢰받는 건축안전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안전자문단들이 신축 건축물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 '2024년 민원서비스 평가' 최고등급 비결은?

행안부·권익위 '가 등급' 선정 경청·소통 행정...공정·신속 처리 외국인·사회적 약자 창구도 마련

광주시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고등급인 '가 등급'에 선정돼 그 비결에 관심이 쏠린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다시 한번 민원서비스의 '감자'임을 증명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원 행정 체계 구축, 공정하고 신속한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 높은 민원 만족도 달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시는 '시민 중심, 시민 감동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해 정기적으로 민원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한 것이 좋은 성적을 받은 이유라고 분석했다. 시민이 제기한 민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했다는 평가다.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 점도 시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효과적이었다. 법정 처리 기간보다 실제 처리 기간을 줄이고 민원인에게 접수-중간처리-처리 결과 등 민원 처리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계절마다 반복되는 민원 해결을 위해 힘쓴 점도 돋보인다. 시는 국민신문고 민원데이터를 활용해 겨울철 급증하는 포털 등 민원민원 해결을 위해 120콜센터에서 민원을 접수했다. 이후 종합건설본부 등 관계 부서에서 처리하는 협업체계를 도입해 2차 민원 예방과 신속한 민원 처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민원인을 위한 다양한 행정 서비스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고질·고충민원과 집단 고충 민원에 대해 '직소민원 전달실'을 운영하고,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최대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듣고 살피는 '경청 행정'도 펼쳤다.

온라인 소통플랫폼 '광주온(ON)', '시민권익위원회' 운영 등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시민·행정 간 지속적인 '소통 행정'도 주목받았다.

민원 취약 계층인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위해 외국인 주민종합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입산부·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아름다운 배려 창구'를 마련한 점도 최우수기관 선정에 큰 힘이 됐다.

민원인뿐만 아니라 공무원 보호에 신경 쓴 점도 우수기관 선정 비결로 꼽힌다.

시는 민원인 폭언·폭행 등 특이 민원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약성 민원 전화 대응시스템 구축, 피해 공무원 지원 등이 담긴 '약성 민원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시민의 입장에서 펼치는 눈높이 소통행정을 통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며 "시민의 입장에서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시민의 기쁨 언덕이 될 수 있도록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전국 306개 기관(중앙 46·광역 17·기초 226)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전력과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 5개 항목에 대해 매년 시행하고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위해 '1229 마음센터' 지원해달라"

강기정 광주시장, 행안부에 요청

광주시는 "행정안전부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등의 심리안정 및 치유를 위한 '1229 마음센터(가칭)' 지원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 6일 광주시청을 방문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을 만나 1229 마음센터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또 주민자치회 운영 법적 지원 근거 마련,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비 전액 국비 지원 등도 건의했다.

강 시장과 고 직무대행은 참사 수습을 위해 온 힘을 다한 광주시와 행안부에 서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했다.

강 시장은 "슬픔은 없어지지 않지만, 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슬픔을 가진 이들이 함께 모여 치유의 과정으로 나아가 한다"면서 "1229 마음센터와 함께 광주시가 구성하게 될 재난심리지원추진단 기준인건비 반영 등 행안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직무대행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시 희생자를 위해 헌신적으로 애써주신 광주시에 감사드립니다"면서 "주요 지역발전 정책들이 지연 없이 추진되고 중앙-지방의 소통이 원활히 이뤄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립도서관, 봄맞이 독서·문화강좌 '활짝'

상반기 정기강좌 11일부터 모집

광주시립도서관(무등·사직·산수)은 "3월부터 5월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20개의 독서문화 강좌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무등도서관은 성인을 대상으로 ▲고전강독-맹자집주 ▲한자교실 ▲누구나 쉽게 사주명리학 ▲서예교실 ▲민화교실 ▲한국화교실 ▲팬 하나로 시작하는 일상드로잉 ▲팝송으로 입문하는 영어회화 ▲통기타 여행 등 9개 강좌를 운영한다.

사직도서관은 ▲내 삶이 시가 되는 창작교실 ▲스마트 시니어교실 ▲시민화문교실 ▲양림을 그리다 ▲감탄 캘리그래피 5개 강좌를, 어린이를 대상

으로 ▲인물로 만나는 우리 역사 등 총 6개 강좌를 준비했다.

산수도서관은 ▲한국 근현대소설 함께 읽기 ▲쉽게 만나는 인문 고전 ▲마음을 담은 캘리그래피 ▲일상여행 어반 드로잉 ▲교양으로 읽는 서양역사 등 5개 강좌를 진행한다.

상반기 독서문화 강좌의 수강료는 무료이며, 재료비와 교재비는 수강생이 부담해야 한다. 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시민은 11일부터 광주광역시립도서관 누리집(홈페이지)의 '문화강좌신청'란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무등(613-7729), 사직(613-7779), 산수(613-7814)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2만원 인상

1인당 월 23만원으로

광주시는 9일 "올해 1월부터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아동 양육비 지원금을 월 21만원(자녀 1인당)에서 23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학용품비 지원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자녀 1인당 연 9만3000원을 지원한다. 청소년 한부모가족(2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경우 2세 이상 자녀에 대한 아동 양육비를 자녀 1인당 월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인상하며, 2세 미만 자녀의 경우 기존

과 동일한 월 4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자동차 재산 기준도 기존 500만원 미만에서 1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시는 한부모가족의 자립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한부모복지시설 6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입주한 한부모가족에게 출산, 주거와 자립, 아이 돌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련다/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련다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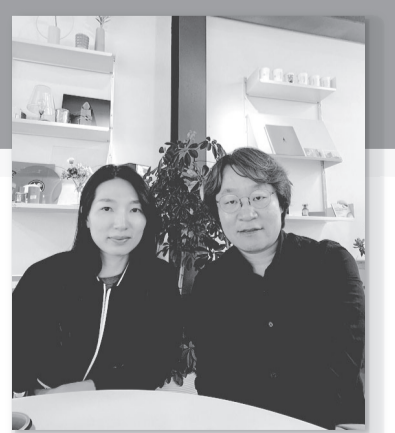
- 이호동 <달이 되련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